"새해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충만, 감사와 소망 충만…송구영신예배 드려

지난 한 해 세상에서 갖가지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새해 복스러운 삶을 기원하는 송구영신예배가 지난 12월 31일 밤 8시 각 성전에서 동시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속에 드려졌다.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 날 밤에 지나온 365일을 회고하며 다가올 새해를 맞는 마음의 채비를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며 당회장 목사님께서 성경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많은 성도들이 각 성전과 처소에서 송구영신예배에 참예하였다.

"금년에도 다사다난하여 성취와 발전으로 인해 기뻐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원하지 않은 좌절과 손실, 상실과 이별로 인해 슬퍼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슬프고 아픈 일들로 인한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돌리는 소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추호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굳게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게 하는 징조들이 현저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본교회 솔리스트 양상블과 안양성전 빌립보·호산나 연합 성가대가 GNTC 챔버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특별찬양(지휘 남형진 지휘자)을 드린 후, 당회장 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며 성도들을 위로 격려해 주시고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물쭈물 인생과 참되고 정신차린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물쭈물 인생'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 후에 대한 대책이 없이 사는 것이 우물쭈물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죽음과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참되고 정신차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허황되고 정신없는 삶을 살 것이냐를 결정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우주관, 역사관, 인생관, 죄와 죄에 대한 해결책, 신관, 내세관을 가지므로 참되고 정신차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매사에 참되고 정신차린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신비한 변화는 없습니다. 더 나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계획과 행하는 일은 이런 숭고한 목적을 위한 부차적인 목적이면서 또한 수단입니다. 새해는 지난 어느 해보다 더욱 '참되고 정신차린 인생답게' 행하기로 작심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하고 뜨거운 심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중에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기도의 담력을 얻어 받은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실천궁행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계속해서 성도들은 당회장 조 목사님의 인도로 우리나라의 안보와 지도자들을 위해, 국민들의 바른 분별력과 한국교회의 각성을 위해, 자유와 복음의 물결이 북한 전역을 뒤덮게 되도록, 세계 각 처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과 선교협력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고, 조 목사님은 성도들이 모두 건강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발전하여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는 새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다.

이어서 성도들은 주 안에서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한 한 해가 되도록 서로를 축복하였고 조 목사님의 축도로 말씀충만, 성령충만, 감사와 소망충만했던 송구영신예배를 마쳤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 (하안동)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한촌길27번길 9-8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39-11(광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 041-667-3731	
율전 :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55(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1월 15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코로나 전염병 상황에서 더 경건한 자세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 김주의 -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는 주일마다 한 작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학교 성가대에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핑계로 주일에도 교회에 가지 않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더니 학교에서 직분을 맡아 바쁘게 학교생활을 하다가 결국 주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학업을 모두 마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중에 고모의 중매로 결혼하여 수원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저에게 시어머니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제 너는 출가외인이다. 그러니 우리 집 가풍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 품을 떠나서 불신자로 살아왔기에 제 입에서 머뭇거림이 없이 '예'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첫째 딸이 두 살이 되었을 때 아파트 옆 동에 사는 은혜와진리교회 구역장님이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구역장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흘려들었습니다. 구역장님은 저를 위해 기도하겠다면서 시간을 내어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자주 시부모님을 찾아 뵙던 저희 부부가 그날도 부모님 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님이 느닷없이 "올해에 네가 아이를 가져야만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저를 부르셔서는 삼신할머니에게 정성을 드려야 한다면서 형님과 함께 절에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녀 온 며칠 후, 구역장님과 전도사님이 또다시 저희 집을 방문하여 간곡하게 전도하면서 교회에 나오도록 강권하셨습니다. 저는 절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며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절밥까지 먹고 왔으니, 교회에 나갈 수가 없는 몸이라며 거절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손자 욕심이 커졌습니다. 손자를 바라는 언행이 잦아지며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당신이 돈을 댈 테니 굿을 하자고도 하였습니다. 제가 불임도 아니고 다만 당분간 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을 뿐이라고 말씀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어머님에게 집사람을 그만 좀 괴롭히라고, 절과 무당집은 어머니 혼자서 다니라고 시댁에 전화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셔서 시아버님 몰래 집밖으로 나와 공중전화로 저를 꾸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막무가내로 굿을 해야한다고 고집하셨습니다. 형님에게 하소연하며 중재를 부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일찍 며느리를 보신 시어머님은 고집이 매우 세셨고 슬하에 세 아들을 두었다는 자부심 또한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말대꾸를 하면 친정에서 무엇을 배워왔냐고 하실까 봐 그냥 참았습니다. 시아버님께 말씀 드리면 집안이 시끄러워질까 두려워서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홀로 우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체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견디다 못해 친정어머니에게 저간의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무렵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어머니는 매우 속상해 하시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에게 무심했던 것을 미안해 하셨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한 날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의 손에 붙잡혀서 무당집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무당집에서 굿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이 연속해서 벌어지며 굿을 방해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굿을 행한 그날 이후 저는 무당의 집에 굿하러 다녀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마음속에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여졌습니다. 시댁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좇는 집안인 줄 알았으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저의 상한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저의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눈물로 시간을 보내다가 굳게 결심을 하고 전도하시는 구역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구역장님의 도움으로 우리 은혜와진리교회 수원성전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여 결신하였습니다. 교회당에 들어가 대성전 문 앞에서 강단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저를 맞아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유년시절을 생각하며 그동안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기도를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고통하며 갈급한 심령이었기에, 그날 이후 예배와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제 마음속에 굳게 자리하고 있던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어느새 연민의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드리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둘째도 예쁜 딸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딸을 또 보게 해주셨습니다. 어린 딸이 탈장으로 아팠을 때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라기 4:2) 하신 말씀 등 신유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치유 받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길 바라고 기도하면서도 한동안 시부모님이 저의 집에 다녀가실 때는 시어머님과 부딪히기 싫어서 교패를 떼었다가 다시 붙이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회개와 다짐을 반복하는 저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동구역장 직분에 이어서 구역장 직분을 허락하시고 교회와 복음전도를 위해 봉사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셨습니다.

형님께서도 조카의 사춘기로 인해 가정에 분란이 잦아지면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무렵, 이를 알게 된 시어머님이 분을 못 참고 화를 크게 내더니 저에게 "너도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겼는지, 즉시 "네! 제가 교회에 다닙니다. 오래 되었어요."라고 담대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를 설득하면서 전보다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더 인내하였습니다. 남편이 학창시절에 미션스쿨을 다녔기 때문인지, 어머님은 남편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가족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므로, 시어머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병실로 찾아오신 시어머님이 저의 손을 꼭 잡고는 "아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해 저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새집도 장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교회가 멀다는 핑계로 구역장 기도회를 등한히 하자 큰아이가 심하게 사춘기를 앓으며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중심의 생활을 하고 교회와 구령을 위해 힘껏 봉사하며 헌신하는 생활을 하도록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역장 세미나에서 전에 제가 전도하였던 집사님이 수석구역장 직분으로 전도상을 받는 모습에 크게 감동하고 감격하였습니다. 제가 전도상을 받는 이상으로 기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디 쥐구멍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섬기는 총무 직분을 주시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신령한 기쁨을 한껏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으로 착하고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교회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였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전부 모여서 함께 연습하지 못하고 함께 찬송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또 한편 이전보다 더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여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또 반복하여 들으므로 더욱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짐을 느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응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신령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력 있고 신실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마음껏 모이고 성가대 등 여러 부서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나가서 더 열렬히 전도를 하기 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롬 8:33~35)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20절 강해 설교"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 누가복음 10장 1절~20절 강해 설교**
- **찬송 : 찬송가 263장 (새찬송가 511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30세부터 대략 3년 반 동안 공적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박힐 날이 박두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마을이 아직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 외에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칠십 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처로 흩어져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실 때도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는데 칠십인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협동하면 홀로 행하기보다 여러모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서로 지혜와 힘을 합하면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면 전도할 대상은 많고 일꾼들은 적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전도하는 일꾼들이 많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갈찌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찌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수님은 칠십 인 제자들에게 행동지침을 주셨습니다.

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였습니다. 전도여행은 관광여행이 아닙니다. 장사꾼으로서 각처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핍박과 곤란과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② 예수께서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단기간에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일용할 것이 조달되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③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유대인의 정통적 인사법으로 하면 장황한 인사말과 포옹과 입맞춤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에 소모할 시간이 없을 만큼 복음전도에 전심전력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대체로 심방이나 구역예배는 절도(節度)있게 해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지만 지나치게 오래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④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도록 하였습니다.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여 평안을 누리십시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 죄인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⑤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복을 선물로 받고 누릴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복은 축복한 사람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에는 헛수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⑥ 평안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서 영접하거든 다른 마을로 가기까지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옮겨 다니면 공연한 오해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폐를 끼친다고 여기지 말 것은 즐겁게 영접하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⑦ 차려 놓은 음식은 가리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음식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개의치 말고 먹으라는 뜻입니다.

⑧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이므로 신유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하여 줍니다.

⑨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척하는 동네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 기필코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⑩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고 듣는 중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말도 선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거절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는 없다 라는 사실을 엄숙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찐저 고라신아, 화 있을찐저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저 날'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저 날'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환희와 행복이 충만한 날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소돔 고모라에 임한 심판보다 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동네는 복음을 듣고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라고 지목하였습니다. 고라신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서 4킬로미터 정도에 있는 어떤 성읍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동북쪽 연안에 있으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며 신유의 은혜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회개가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방나라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권능을 경험하였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대하여도 언급하시기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사역의 본부로 삼은 곳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등이 여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한 때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권능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여러 이적을 행하신 예수께서 날이 밝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들을 떠나지 말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각처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니 어느새 가버나움 사람들은 은혜 받고 감동하던 마음이 다 식어 버렸습니다.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경력이 더해지면 오히려 신앙은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하여지고 지식과 경험이 누적되면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므로 인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응답과 신령한 은사의 체험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져야 합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가르침과 활동의 권위는 그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파송하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받는 직분에는 임명자의 권위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자를 존중히 여김은 그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칠십 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전도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활동하는 배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것같이 칠십인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뱀과 전갈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은 일로 인하여 매우 흥분하고 기쁨이 최고조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칭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들 중에서 본문에 관련하여 두 종류의 기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능을 몸소 체험할 때 가지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상치 못했던 신기한 경험으로 인한 충격적 감동으로 만면희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기사와 이적은 매우 크고 놀라운 것이었지만 직접 자신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때 그 감동과 충격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은 진하고 강렬합니다.

70인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특별하게 선택된 열두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권능을 크게 부어 주셨지만 자신들에게도 그런 권능이 나타나리라고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악령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가슴 뿌듯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경험이 매우 실제적인 것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눅 10:19)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거든 이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성취된 일들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그 기쁨을 자제하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의 권능을 체험한 일을 크게 기뻐하고 간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많은 체험들을 주십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남을 체험하였거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크고 많은 권능의 나타남을 기대하며 믿고 행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을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70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① 먼저는, 우리가 얻게 된 성과와 체험으로 인한 기쁨에 치우쳐 빗나간 생각과 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게 되면 자칫 그로 인하여 교만한 생각이 싹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능이 나타나고 그런 성과를 거둔 것이 마치 자신의 노력과 열심,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여기고 행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칠십인 제자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라는 말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은 "내가"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공로를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계속 주의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느새 "내가"라는 말로 대체되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라고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바탕에 항상 있어야 하며 생각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모든 좋은 성과에 대한 그 출발점, 그 원인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육신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는 이 부패된 본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부패된 본성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언제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교만하여 진다면 그가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초래케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② 다른 하나의 메시지는 성도들이 가지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도 크지만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옥 형벌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기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계 20:12,15) 하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계 21:27)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한 평생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세상에서의 삶이 무익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다는 것이 참으로 한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어떤 종류의 행운이라도 여기에 비길 바가 못됩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쁨을 능가할 기쁨은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기쁨은 영속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하는 이상의 성과를 언제나 거두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한 기쁨이란 영속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누구도 지우지 못합니다.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가지면 시험과 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기쁨은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하여도 방해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미워하여 공회로 끌고 가서 재판받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 때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정죄를 했는데 얼굴이 창백해지고 벌벌 떨 것 같은데 오히려 천사와 같았습니다. 스데반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체포되어 구금되고 채찍질 당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주님을 섬겨 헌신 봉사하는 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됩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해심이 많고 협동심이 강하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을 향유하게 되기를 바라고 힘써 전도하게 됩니다.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는 곳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사람을 기록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얼마든지'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종종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기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거든 그대로 내버려 놓지 마시고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상기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리하여 기뻐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천사들이 받들어서 낙원에 들어갈 것이며, 장차 부활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강조하기 위해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두 종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아 가지도 못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남을 체험함으로 갖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로 인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풍성한 응답과 권능의 나타남을 갈망하며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갖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는 강하게 됩니다. 환란, 유혹, 시험을 능히 이깁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자랑하며 기뻐할수록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들을 제압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여 큰 기쁨을 안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쁨에 머물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욱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항상 풍성하기를 바랍니다.